



3 · 13 만세운동 재현행사

독립운동유적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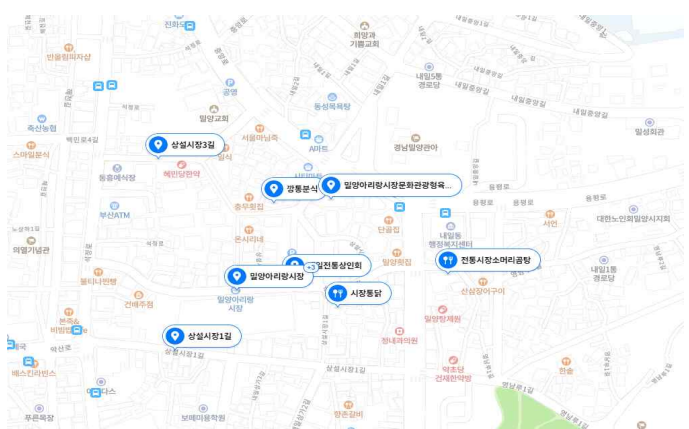
Introduction

해마다 3월에 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향토청년회가 주관하는 3·13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시민 및 학생 3,000여명이 참석해 영남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3.13 만세운동을 재현해 선열들의 빛나는 항일 저항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있다.



위치

Location



관련정보

Information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밀양시 밀양관아지 주변

역사정보

- 3.13 밀양 만세운동 발생 개요

- 발생일시: 1919년 3월 13일 오후 1시경, 밀양 장날
- 발생장소: 내일동 시장 안
- 참여인원: 1,000여 명(당시 인구 규모와 장날 규모로 볼 때 2~3천명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

■ 전개과정: 고종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시위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윤치형, 윤세주 등이 을강 전홍표를 찾아가 서울에서 보고 들은 바를 보고하고 자문을 구한 뒤 시위준비에 들어갔다. 밀양면 사무소와 부북면사무소의 등사판을 훔쳐 수천장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윤세주의 집에 숨겨두고 3월 13일 밀양장날을 기해 만세운동을 외치면서 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다음날인 3월 14일 밀양공립보통학교 학생 전교생(160여명)이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거리로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며 행진 했고 그 후 4월 중순까지 8차례에 걸쳐 만세운동이 이어졌다.

■ 역사적 의의: 밀양면 만세운동은 일합사·연무단 등의 비밀결사, 동화학교·정진학교 등의 민족교육학교, 전홍표·황상규 등의 항일 인사들의 항일독립의식 교육의 표출이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윤치형·윤세주 등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조선의열단을 결성하는 주체가 되었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 참여대상: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관련링크

- 누리집: <http://www.miryang315.or.kr/>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yang315/220641568315>

